

#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갑질-막말 파문

광주 시립도서관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1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립도서관 A과장의 '갑질' 사례를 담은 파일이 제출돼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감사위는 또, 시 인권옴부즈맨과 합동으로 피해 여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 중이다.

도서관 일부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A과장의 갑질이 있을 때마다 일

## 시 감사위-인권옴부즈맨,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10여명...시, 해당 과장 대기발령

지와 메모 형식으로 그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파일'에 따르면 시립도서관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부서운영비로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관계대로 3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지만, A과장은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해 1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 4월 '광주시장상(賞)'을 받고 싶다며 직원들에게 단독추천을 요구해 수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임신한 직원과 강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장애인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출근길 접촉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한 직원은 차량정비 문제 등을 놓고 A과장으로부터 폭언

에 시달리다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과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임 근무지에서도 폭언을 반복해 직원 10여명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이날자로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과장은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며 업무 능력이 떨어진 일부 직원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은홍 기자

## 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 무면허 3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교통 법규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A(3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에 적발돼 정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번호가 특정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한 A씨는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 주택 빈집 확인 뒤 상습절도 30대 덩미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주택에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2시47분께 남구 B(67)씨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 3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초인종 등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지난 6월 출소한 뒤 3개월여만에 똑같은 짓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절도를 한 뒤 곧바로 통장을 개설해 훔친 현금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출소후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10년간 노숙인 보조금 가로챘 40대 적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기초수급 대상자의 정부 보조금을 10년간 빼앗아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애인에 상습적으로 협박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A(49)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 노숙인시설에서 알게 된 B(55)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1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B씨로부터 돈을 뺏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숙인시설을 전전하며 자네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매달 생계급여 50만원, 주거급여 21만원, 장애수당 4만원 등 총 75만원을 받아왔다. A씨가 가로챈 금액은 초기엔 매달 2,3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5년 새 25만원 선으로 규모가 커졌다.

경찰은 장애인이 돈을 뺏기고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오랜 기간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했다.

## 대학교서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검거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교정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대학원생이 학생증을 보여준 것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경찰서는 12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에 청주시 모 대학교 대학원 독서실 안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이 학교 대학원생 B(24·여)씨가 동선을 수상히 여겨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C(27)씨의 노트북을 훔치고, 10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현금 5만 600원이 들어있던 행인 D(53·여)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생필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 성비위 高 교사들 '구속영장 신청' 고려

광주 한 고교의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중 혐의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1일 광주의 A 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교육청으로 먼저 신고됐으며 학생 1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A 고교 교사 16명이 지적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여경과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4일째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대부분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해 교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3학년이어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발행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표 수집가들이 구입한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지르고 있다.

## 순천엔매실, 시 감사에 불만 항의 집회하기로 해 '눈총'

시, 법에 근거한 감사로 보조금 정산소홀 등 확인

국가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지자체 감사받자 '표적 감사'라며 집단 행동을 벌이기로 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월등면 소재의 순천엔매실(주)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전략 식품 산업 육성사업 공모회사로 선정돼 67억여원을 보조받는다. 올해 12억원을 지원받았다.

내부 지침상 매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은 순천시, 지난해에는 전남도 감사로 대체했다. 올해는 지난 달 28일부터 4일간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따라서 보조금 정산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사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매실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수입액에 달한데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아 하게 된 것이다"면서 "민간 회사가 아닌 해당부서를 조사했고 기간 연장 계획도 없는데 감사 일정을 늘렸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순천엔매실(주)는 "6월 지방선거 때 김모 대표가 허석 시장 상대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당하고 있고,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업회계 장부까지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로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일부 주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련법에 따라 감사를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면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순천엔매실(주) 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에는 6000만원을 전 주주들이 배당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무배당이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내일 집회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대표는 "특별감사 명목으로 민간기업 감사를 하는 건 문제다"며 "국비사업이어서 전남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야하는데 시에서 먼저 벌이기로 하고 있어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차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미혼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